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태 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향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s

2011년 0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태 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향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태 훈

김태훈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일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
ABSTRACT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5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6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8
4. 선행연구 고찰	9
III.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연구도구	15
3. 연구절차	17
4. 자료처리	18
IV. 연구결과 및 논의	19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19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21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34
V. 결론 및 제언	38
1. 결론	38
2. 제언	39
참고문헌	40
부 록	41

표 목 차

<표 II-1> 고용형태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현황	7
<표 II-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공간·시설	8
<표 II-3> 교구 및 기자재 비치수준 및 활용도	9
<표 III-1>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표집된 특수교육지원 센터	13
<표 III-2> 설문 응답 교사들의 기초 사항	14
<표 III-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조사영역, 내용 및 문항 수	16
<표 IV-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의 비교	19
<표 IV-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별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 간의 비교	21
<표 IV-3>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	23
<표 IV-4> 특수학교(초등)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24
<표 IV-5> 특수학교(중등)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25
<표 IV-6> 특수학교(직업)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27
<표 IV-7> 물리치료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28
<표 IV-8> 작업치료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29
<표 IV-9> 언어치료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30
<표 IV-10> 상담전문가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31
<표 IV-11> 사회복지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32
<표 IV-12> 특수교육보조원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33
<표 IV-13>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기자재의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의 비교	35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s

Tae-hun Kim

Advisor: Prof. Young-il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s by examining their current status in terms of functions, personnel, and facilities. A total of 98 centers were selected by stratified and systematic sampling from 187 centers across the nation. Representatives from 92 of 98 cent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during the summer of 201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s were reported to be putting priorities in the order of itinerant teaching, assessment, instruc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ey needed to to make improvement in early finding, continuing education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rapeutic support, support for family counseling, transition services, and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ion.

Secondly,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s were found to be hiring an

average of 0.53 second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0.48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need for hiring the personnel was in the order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 speech/language pathologist, special vocational educator, secondary special education teacher, etc.

Finally, the centers were found to have assessment instruments, instructional materials, and assistive devices and softwares sufficient to support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in inclusive settings. However, they ran much short of rooms for counseling, providing therapeutic services, assessing students, supporting transition-related activiti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 구현은 인류의 소망이며 이를 위한 실천은 선진국을 가름하는 국민의식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학년도 교육 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건강장애학생과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교육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건강장애 학생과 농·산·어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조옥순, 2007).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된 지원조직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지원조직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1세기 초반이라는 이 시대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의 형성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구조를 타파하고 분권적인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지원구조를 모색해 가는 과정이고, 서비스 중심(service based)에서 지원 중심(support based)으로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는 과정이다(이효자, 2002).

이런 과정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수요자의 요구를 우선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전달 체계와 지원체제를 바꿔놓는 획기적인 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정책의 시행이후에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미선 외, 2006).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제2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에 내용이 언급된 이래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및 교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18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씩 설치되었다. 하지만 시설 확보 및 전담인력 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강경숙 외, 2008).

지난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특수교육법의 시행과 새로운 법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2012)과 2009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역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 현재는 180개 지역교육청 산하에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진단과 배치, 특수학교(급) 교수·학습활동지원, 직업교육 알선, 방과 후 활동 지원, 장애학생 가족상담 서비스, 통합교육 지원 및 순회교육 지도, 치료교육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예산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부족, 전담인력 배치 미비 등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역사회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치료지원, 진단평가, 가족상담 등 종합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요구학생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법과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효자,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및 요구사항, 문제점 및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재 운영 실태와 개선 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전담인력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확보된 시설 및 기자재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란 지역사회내의 전반적인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박경숙, 2000).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교사를 의미한다(배정은, 2010).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들은 너무나 많다. 담당해야 할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2000)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실시,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 활동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상담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정동영, 200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백옥희, 2009).

첫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정보 관리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병의원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관련조치를 취하며, 장애 영유아 발달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진단·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교육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전환능력 평가를 지원한다.

셋째, 다양한 특수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진로상담, 직업교육 실시, 재택 순회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 장애아 가족상담 및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 도구 대여,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특수교육 연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관련 행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특수교육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의무교육제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사업 홍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 및 방법지원, 특

수교육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상담, 순회교육 및 치료교육 서비스, 특수교육 공학기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특수교육보조원 훈련 및 관리 지원 등의 특수교육 활동지원과 장애영유아 관련 정보 수집 및 유아 발달진단 결과 정보 관리 등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정보 관리 지원, 장애아동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능력 평가 지원 등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분석,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지원 등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배정은, 2010).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요구되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일조직이 아니라 팀 제도를 도입하여 그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소한 장애학생의 발견과 진단 및 선정·배치를 담당할 진단·배치 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장애학생과 그들의 가족들의 상담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팀 및 장애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전환을 지원할 전환지원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정동영, 2001).

2010년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교사 794명, 일반직 18명, 기타 588명으로 총 1,400명이다. 고용형태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제시하면 <표 II-1>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 1,400명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241명(17.2%), 파견직 36명(2.6%), 비정규직 1,123명(80.2%)으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중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자격유형을 분석해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는 신규 교사가 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 고용형태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현황

변 인	총원(명)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총인원	1,400	정규직	241	17.2
		파견직	36	2.6
		비정규직	1,123	80.2
유치원교사	118	정규직	1	0.8
		파견직	4	3.4
		비정규직	113	95.8
초등학교교사	298	정규직	74	24.8
		파견직	21	7.0
		비정규직	203	68.1
중고등학교교사	170	정규직	51	30.0
		파견직	6	3.5
		비정규직	113	66.5
재활복지교사	101	정규직	86	85.1
		파견직	0	0.0
		비정규직	15	14.9
치료교육교사	97	정규직	23	23.7
		파견직	0	0.0
		비정규직	74	76.3
직업교사	9	정규직	0	0.0
		파견직	5	55.6
		비정규직	4	44.4
이료교사	1	정규직	0	0.0
		파견직	0	0.0
		비정규직	1	100
일반직	18	정규직	6	33.3
		파견직	0	0.0
		비정규직	12	66.7
기타인원	588	정규직	0	0.0
		파견직	0	0.0
		비정규직	588	100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 제2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급교육 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포함)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가급적 지역사회 장애인 및 부모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순회교육, 장애영아 교육지원, 치료지원, 통합교육지원, 진단·평가,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구 대여, 장애아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는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등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와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공간 시설을 제시하면 <표 II-2>와 같다(백옥희, 2009).

<표 II-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공간·시설

시 설	수 량	구 분	비 고
사무실	1실	의무	-
진단·평가 및 상담실	1실	의무	교육청 내 공동 사용실 활용 가능
연수실	1실	의무	교육청 내 공동 사용실 활용 가능
치료실	1실 이상	권장	-
직업·치료실	1실 이상	권장	-
자료실	1실	의무	사무실과 공동 활용 가능
영아교실	1실	의무	-
계	7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 요구 조사에 기초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구비하여야 할 교구 및 기자재 현황을 제시하면 <표 II-3>과 같다(이효자, 2009).

<표 II-3> 교구 및 기자재 비치수준 및 활용도(N=175)

시 설	비치수준			활용도		
	충분	보통	부족 (없음)	높음	보통	낮음
장애영역별 보조공학기기	23 (13.1%)	98 (56.0%)	54 (30.9%)	47 (26.9%)	76 (43.4%)	52 (29.7%)
장애영역별 교재 및 교구	55 (31.5%)	107 (61.1%)	13 (7.4%)	133 (76.0%)	36 (20.6%)	6 (3.4%)
장애영유아 진단 및 교육기자재	26 (14.9%)	107 (61.1%)	42 (24.0%)	55 (31.5%)	95 (54.2%)	25 (14.3%)
교사용 교수자료	81 (46.3%)	79 (45.1%)	15 (8.6%)	56 (32.1%)	95 (54.2%)	24 (13.7%)

교구 및 기자재의 비치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영역별 보조공학기기, 장애영역별 교재 및 교구, 장애영유아 진단 및 교육기자재 모두 ‘보통’이 가장 높은데 비해 교사용 교수자료는 ‘충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 및 기자재에 활용도를 살펴보면 장애영역별 보조공학기기, 장애영유아 진단 및 교육기자재, 교사용 교수자료 모두 ‘보통’이 가장 높은데 비해 장애영역별 교재 및 교구는 ‘높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구 및 기자재에 대한 비치수준 및 활용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재 및 기자재에 대한 영역별 비치 수준과 활용도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중요도에 근거한 교구 및 기자재의 비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효자, 2009).

4. 선행연구 고찰

구영희(2010)는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국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을 통하여 이상적인 모델을 구안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의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목적과 운영의 관점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긍정적인 의사가 있는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담당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이 숨이 차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사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환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 교사에 대한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등은 국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운영현황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뢰된 학생에 대하여 선정·배치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급하고 인력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대조(2010)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26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관리 기능역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의 활용과 범정부적인 홍보 지원이 필요하며, 진단평가 기능수행과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공간확보 등이 필요하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최재완(2010)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교사 10명과 현장 특수교사 10명의 지원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핵심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의견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반확립’과 ‘협력체제 마련’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제시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홍보, 통합환경에 배치된 장애학생 지원 체제 구축, 유경력 특수교사 배치 확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망 정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자율성 확대, 특수교사의 협력적인 태도 등을 제안하였다.

홍은숙(2010)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의 실태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 영·유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 영·유아 모집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었지만 매우 미흡하였고,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가족지원 서비스도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담교사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장애영·유아 사업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자(2009)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전자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175곳에서 응답하였다. 장애영역별 진단·평가 검사도구의 설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와 학습장애의 검사도구가 충분한 반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시각·청각·지체장애의 경우 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인프라를 통한 협력적 진단·평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진단·평가 효율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장애영역별 표준화된 진단·평가 검사도구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및 기자재에 대한 영역별 비치 수준과 활용도도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각 장애영역과 교수·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구 및 기자재의 비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11개의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협력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반에 걸친 교사들의 인식에 있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기여도, 교수·학습 지원의 적절성, 서비스 지원의 적절성, 진단·평가도구의 비치 적절성에 대하여 비교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원확충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원 확충 요구가 가장 높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이미션(2006)은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146명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또

는 지원 교사 126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부족,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지원인력에 대한 우대책 부족,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 교육청 장학사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기자재 및 진단·평가 도구 등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단계적 지원모형에 기초하여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87개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98개소였다. 연구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광역단위 지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장소를 각각 층화한 후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선정되었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지역별로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과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일련번호를 각각 매긴 후, 각 유층에서 홀수번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6개소를 제외한 92개소였다. 2010년 8월 기준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현황 및 표본을 지역별 및 설치 장소별로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표집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 역	모집단 지원센터 수		표본 지원센터 수	
	지역교육청	일반학교	지역교육청	일반학교
서울	1	10	1	6
부산	6	0	3	0
대구	0	4	0	2
인천	6	0	3	0
광주	2	0	1	0
대전	0	3	0	2
울산	1	2 ¹⁾	1	1 ¹⁾
경기	4	21	2	11
강원	16 ²⁾	1	8 ²⁾	1
충북	8	3	4	2
충남	12	3	6	2
전북	11	6 ³⁾	6	2
전남	18	4	9	2
경북	11	12	9	3
경남	16	4	6	4
제주	2	0	1	0
계	114	73	60	38

1) 특수학교 1개교의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함.

2) 인제도서관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를 포함함.

3) 특수학교 2개교의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함.

표본으로 선정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인력 및 시설 현황과 개선 요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의 기초적인 배경을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 응답 교사들의 기초 사항(N=92)

변 인	구 분	사 례 수(명)	백 분 율(%)
성 별	남	22	23.9
	여	70	76.1
연 령	29세 이하	44	47.8
	30-39세	31	33.7
	40-49세	12	13.0
	50세 이상	5	5.4
전 공	특수교육전공	60	65.2
	일반교육전공	4	4.3
	일반+특수교육전공	4	4.3
	기 타	24	26.1
설 치 장 소	시·군·구(지역)교육청	57	62.0
	특수학교	1	1.1
	일반학교	34	35.9
	기타	1	1.1

설문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70명(76.1%), 남자가 22명(23.9%)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연령을 보면 29세 이하가 44명(47.8%),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31명(33.7%),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12명(13.0%), 50세 이상이 5명(5.4%)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 교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사들의 전공을 보면 특수교육전공이 60명(65.2%)으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반교육 전공이 4명(4.3%),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전공이 4명(4.3%)이었으며, 기타 전공이 24명(26.1%)이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타 전공자는 치료사, 사회복지사, 보조원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구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층화표집한 결과,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지역교육청이 57명(62.0%), 일반학교 34명(37.0%), 특수학교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경우 울산 해인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 인제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재도서관 1층에 설치되어 있었다.

교육경력을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교육 경력이 6.50년, 특수교육 경력이 2.23년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경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특수교육 경력에 비해 일반교육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학사 등이 응답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전담인력, 시설 및 기자재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였다(부록 참조). 이 질문지는 연구 목적에 맞게 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것이며, 응답 교사들에 대한 기초 사항을 묻는 6문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10문항, 전담인력에 관한 10문항,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10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구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기초 사항관련 문항은 현재 근무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장소, 성별, 연령, 전공 분야, 교육경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 경력 등이었다. 연령, 교육경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 경력은 각각 등간변인이었고, 기타 문항은 범주변인으로서 각각 단일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이었다.

이 설문지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표 <표 III-3>와 같다.

<표 III-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조사영역, 내용 및 문항 수

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주요내용
기초조사		6	인구학적 특성 및 교직원관련 영역
특수교육 지원센터 현황 및 개선요망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수행 정도 및 개선요망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10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재 활동하는 인 원 및 확보요망 인원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기자재	10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기자재 현황 및 확보요망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치료지원, 가족상담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수교육행정지원 등 총 10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며, 그 중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은 치료지원과 가족상담지원으로 세분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과 특수교육행정지원은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각 기능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도와 앞으로 개선되기 바라는 정도를 각각 Likert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즉 각 기능별 수행 정도가 현재 ‘매우 충분하다’고 보면 5점, ‘매우 불충분하다’고 보면 1점에 표시하도록 응답자들에게 요청하였고,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면 5점, ‘전혀 필요없다’고 보면 1점에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야 할 전담인력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초등 교사, 특수학교 중등 교사, 특수학교 직업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교육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수학교교사는 현재 양성되고 있는 학교급별 및 표시과목 체제를 고려하여 세분하였고, 관련서비스 인력은 국가자격증이 발급되고 있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등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켰다. 전담인력을 고용형태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과 앞으로 충원되기 바라는 인원을 각각 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는 진단·평가실, 교수·학습실, 상담실, 치료지원실, 직업·전환교육실, 장애인 편의시설, 진단·평가 도구, 교수·학습 자료, 보조공학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교사 연수자료 등으로 구분하였다. 시설 및 기자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구분하였고,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직업·전환실을 추가하였다. 시설 및 기자재와 관련하여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도와 앞으로 확보하기 바라는 정도를 각각 Likert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즉, 시설 및 기자재가 현재 ‘매우 충분하다’고 보면 5점, ‘매우 불충분하다’고 보면 1점에 표시하도록 응답자들에게 요청하였고,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면 5점, ‘전혀 필요없다’고 보면 1점에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맞게 질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초안에 포함된 문항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질문지 초안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질문지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의 전담 특수교사 2인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수교육행정지원을 추가로 포함시켰고, 전담인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하였으며, 시설 및 기자재와 관련하여 직업·전환교육실,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2010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연

락처를 알 수 있었고, 각 지원센터의 관계자에게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를 거부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개소였으며, 세 차례 이상 전화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98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92개소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93%로 나타났다. 설문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관계자는 연구자가 별도로 개설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파일 형태로 응답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4. 자료 처리

질문지에 응답한 교사들의 기초 사항은 범주변인의 경우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속변인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 검정은 양측검정이었고, 유의수준은 5%, 1%, 0.1% 이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검정도 양측검정이었고, 유의수준은 5%, 1%, 0.1% 이었다. 또한, 유형별 및 고용형태별 전담인력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확보 현황과 개선 요망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검정도 양측검정이었고, 유의수준은 5%, 1%, 0.1% 이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이 연구의 첫 번째 문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주요 기능별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각 기능별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표본 *t*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의 비교

기능	현재 수행 정도		개선 요망 정도		<i>t</i> 검정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기발견	2.62	0.78	4.03	0.73	-10.76***
진단 및 평가	3.59	0.76	3.65	0.94	-0.43
정보관리	3.41	0.81	3.54	0.93	-0.86
특수교육 연수	2.86	0.96	3.86	0.90	-5.81***
교수학습활동 지원	3.50	0.83	3.48	0.82	0.15
순회교육	3.64	1.02	3.35	1.07	1.55
치료지원	3.23	1.13	3.66	1.03	-2.18*
가족상담 지원	2.61	0.98	4.08	0.75	-9.52***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1.96	1.02	4.20	0.83	-14.11***
특수교육행정 지원	3.05	1.12	3.63	1.09	-2.75**

* $p < .05$, ** $p < .01$, *** $p < .001$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의 순위를 보면 순회교육, 진단·평가,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보 관리, 치료 지원, 특수교육행정, 특수교육 연수, 조기 발견 및 가족상담 지원, 평생교육·취업 지원 등이었다. 교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순회교육, 진단·평가,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보 관리, 치료 지원 및

특수교육행정은 보통 이상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비해, 특수교육 연수, 조기 발견, 가족상담 지원, 평생교육·취업 지원은 보통 이하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개선 요망 정도 순위를 보면 평생교육·취업 지원, 가족상담 지원, 조기 발견, 특수교육 연수, 치료 지원, 진단·평가, 특수교육행정 지원, 정보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이었다. 평생교육·취업 지원, 가족상담 지원, 조기 발견 등에 대해서는 개선 요망 정도가 5단계 Likert 평정척도에서 4점 이상이었고,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개선 요망 정도의 범위가 3.35-3.86이었다.

각 기능별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기 발견, 특수교육 연수, 치료 지원, 가족상담 지원, 평생교육·취업 지원, 특수교육행정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발견의 경우 현재 수행 정도는 평균 2.62이었고, 개선 요망 정도는 평균 4.03이었으며,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연수의 경우 현재 수행 정도는 평균 2.86이었고, 개선 요망 정도는 평균 3.86이었으며,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지원의 경우 현재 수행 정도는 평균 3.23, 개선 요망 정도는 평균 3.66이었으며,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 지원의 경우 현재 수행 정도는 평균 2.61, 개선 요망 정도는 평균 4.08이었으며,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취업 지원의 경우 현재 수행 정도는 평균 1.96, 개선 요망 정도는 평균 4.20이었으며,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행정의 경우 현재 수행 정도가 평균 3.05이었고, 개선 요망 정도는 평균 3.63이었으며,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평가, 정보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에 있어서는 각각 현재 수행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행정도와 개선요망 정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정보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등의 기능은 비교적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견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에 대한 의견,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의견, 진단평가지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의견 등이 있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이 연구의 두 번째 문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요망 인원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별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요망 인원에 대한 기술통계 및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요망 인원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표본 *t*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별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요망 인원 간의 비교

구분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요망 인원		<i>t</i> 검정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정규직	0.07	0.25	0.64	0.78	-6.89***
	비정규직	0.47	0.73	0.12	0.36	4.08***
특수학교교사 (초등)	정규직	0.48	0.67	0.93	1.05	-4.04***
	비정규직	0.70	0.86	0.04	0.21	6.90***
특수학교교사 (중등)	정규직	0.53	0.87	0.65	0.73	-1.06
	비정규직	0.38	0.68	0.10	0.33	4.06***
특수학교교사 (직업)	정규직	0.04	0.25	0.70	0.64	-8.54***
	비정규직	0.08	0.27	0.11	0.56	-0.58
물리치료사	정규직	0.03	0.18	0.41	0.56	-6.18***
	비정규직	0.17	0.46	0.23	0.47	-0.73

작업치료사	정규직	0.03	0.18	0.46	0.64	-5.95***
	비정규직	0.43	0.72	0.20	0.47	2.57*
언어치료사	정규직	0.03	0.23	0.74	0.96	-6.70***
	비정규직	0.60	0.87	0.33	0.71	2.48*
상담전문가	정규직	0.01	0.10	0.42	0.50	-7.67***
	비정규직	0.07	0.25	0.14	0.35	-1.62
사회복지사	정규직	0.00	0.00	0.34	0.52	-6.22***
	비정규직	0.02	0.15	0.11	0.31	-2.37*
특수교육 보조원	정규직	0.00	0.00	0.42	0.96	-4.22***
	비정규직	0.42	0.98	0.16	0.62	2.52*

* $p < .05$, ** $p < .01$, *** $p < .00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정규직 인력의 평균을 보면 특수학교 중등 교사가 0.53명, 특수학교 초등 교사가 0.48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가 0.07명, 특수학교 직업 교사가 0.04명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는 각각 평균 0.03명 배치되어 있었고, 정규직 상담전문가는 평균 0.01명 배치되어 있었으며,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육 보조원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비정규직 인력의 평균을 보면 특수학교 초등 교사가 0.70명, 언어치료사가 0.60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가 0.47명, 작업치료사가 0.43명, 특수교육 보조원이 0.42명, 특수학교 중등 교사가 0.38명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물리치료사는 평균 0.17명, 특수학교 직업 교사가 0.08명, 상담전문가가 0.07명, 사회복지사가 0.02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총원 요망 인원의 평균을 보면 특수학교 초등 교사가 0.93명, 언어치료사가 0.74명, 특수학교 직업 교사가 0.70명, 특수학교 중등 교사가 0.65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가 0.64명, 작업치료사가 0.46명, 상담전문가 및 특수교육보조원이 각각 0.42명, 물리치료사 0.41명, 사회복지사가 0.34명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총원 요망 인원의 평균을 보면 언어치료사가 0.33명, 물리치료사가 0.23명, 작업치료사가 0.20명, 특수교육 보조원이 0.16명, 상담전문가가 0.14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가 0.12명, 특수학교 직업 교사가 0.11명, 특수학교 중등 교사 및 사회복지사가 각각 0.11명, 특수학교 초등 교사가 0.04명의 순이었다.

정규직의 경우 모든 유형의 인력을 현재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총원되기를 요

망하였으며, 특수학교 중등 교사를 제외하면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 간에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비정규직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중등 교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육 보조원은 현재 배치 인원보다 충원 요망 인원이 적었으며, 그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특수학교 직업교사, 물리치료사, 상담전문가 및 사회복지사는 현재 배치 인원보다 충원 요망 인원이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을 고용 형태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 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86	93.5	0	47	51.1
				1	33	35.9
	1	6	6.5	2	11	12.0
				4	1	1.1
비정규직	0	63	68.5	0	82	89.1
	1	26	28.3	1	9	9.8
	2	1	1.1			
	3	2	2.2	2	1	1.1

정규직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6개소(93.5%),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개소(6.5%)로 나타났다. 정규직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7개소(51.1%),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3개소(35.9%),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1개소(12.0%),

4명을 충원하기 요망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3개소(68.5%)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6개소(28.3%),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 3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기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2개소(89.1%)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개소(9.8%)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무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충원요망인원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충원요망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특수학교(초등)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특수학교(초등) 교사의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특수학교(초등) 교사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특수학교(초등)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 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57	62.0	0	40	43.5
	1	26	28.3	1	28	30.4
				2	17	18.5
				3	4	4.3
				4	3	3.3
비정규직	0	49	53.3	0	88	95.7
	1	25	27.2			
	2	15	16.3	1	4	4.3
	3	3	3.3			

정규직 특수학교(초등)교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7개소(62.0%)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6개소(28.3%)였으며, 2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개소(9.8%)였다. 정규직 특수학교(초등)

교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0개소(43.5%)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8개소(30.4%)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7개소(18.5%)였으며, 3명을 충원하기 요망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 4명을 충원하기 요망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초등)교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9개소(53.3%)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5개소(27.2%),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5개소(16.3%), 3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초등)교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기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8개소(95.7%)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였다.

특수학교(초등)교사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무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충원요망인원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 특수학교(초등)교사의 충원요망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특수학교(중등)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특수학교(중등) 교사의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특수학교(중등) 교사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특수학교(중등)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58	63.0	0	44	47.8
	1	25	27.2	1	38	41.3
	2	5	5.4	2	8	8.7
	3	2	2.2	3	2	2.2
	4	2	2.2			
비정규직	0	65	70.7	0	84	91.3
	1	21	22.8	1	7	7.6
	2	4	4.3			
	3	2	2.2	2	1	1.1

정규직 특수학교(중등)교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8개소(63.0%)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5개소(27.2%), 2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개소(5.4%)이고, 3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 4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정규직 특수학교(중등) 교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4개소(47.8%)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8개소(41.3%)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개소(8.7%), 3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중등)교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5개소(70.7%)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1개소(22.8%),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 3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중등)교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기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4개소(91.3%)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개소(7.6%)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특수학교(중등)교사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원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충원요망인원의 경우 비정규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특수학교(직업)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특수학교(직업) 교사의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특수학교(직업) 교사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특수학교(직업)교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89	96.7	0	35	38.0
	1	2	2.2	1	52	56.5
	2	1	1.1	2	3	3.3
				3	2	2.2
비정규직	0	85	92.4	0	86	93.5
	1	7	7.6	1	5	5.4
				2	1	1.1

정규직 특수학교(직업)교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9개소(96.7%)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 2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정규직 특수학교(직업) 교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5개소(38.0%)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2개소(56.5%)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 3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직업)교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5개소(92.4%)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개소(7.6%)였다. 비정규직 특수학교(직업)교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기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6개소(93.5%)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개소(5.4%)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특수학교(직업)교사의 경우 근무인원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충원요망 인원 정도를 살펴보면 센터 내에 1명 정도의 정규직 특수학교(직업)교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물리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물리치료사의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물리치료사의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물리치료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89	96.7	0	57	62.0
	1	3	3.3	1	32	34.8
				2	3	3.3
비정규직	0	79	85.9	0	73	79.3
	1	10	10.9	1	17	18.5
	2	3	3.3	2	2	2.2

정규직 물리치료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9개소(96.7%)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였다. 정규직 물리치료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7개소(62.0%)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2개소(34.8%)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였다.

비정규직 물리치료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9개소(85.9%)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0개소(10.9%),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였다. 비정규직 물리치료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기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3개소(79.3%)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7개소(18.5%)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무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전체근무 인원으로 보았을 때 근무인원이 다른 전담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충원요망인원 정도를 살펴보면 센터 내에 1~2명 정도의 정규직

물리치료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작업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작업치료사의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작업치료사의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작업치료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89	96.7	0	56	60.9
				1	31	33.7
	1	3	3.3	2	4	4.3
				3	1	1.1
비정규직	0	61	66.3	0	77	83.7
	1	25	27.2			
	2	3	3.3	1	12	13.0
	3	3	3.3	2	3	3.3

정규직 작업치료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9개소(96.7%)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였다. 정규직 작업치료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6개소(60.9%)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1개소(33.7%)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 3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비정규직 작업치료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1개소(66.3%)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5개소(27.2%),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 3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소(3.3%)나타났다. 비정규직 작업치료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기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7개소(83.7%)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2개소(13.0%)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가 3개소(3.3%)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정규직 작업치료사의 근무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충원요망 정도를 보면 정규직 작업치료사의 충원을 바라는 곳은 40% 정도 나타났다.

7) 언어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언어치료사 수와 충원되기 바라는 언어치료사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언어치료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90	97.8	0	46	50.0
	1	1	1.1	1	32	34.8
	2	1	1.1	2	8	8.7
				3	5	5.4
				5	1	1.1
비정규직	0	56	60.9	0	71	77.2
	1	21	22.8	1	15	16.3
	2	11	12.0	2	4	4.3
				3	1	1.1
				4	1	1.1

정규직 언어치료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0개소(97.8%)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 2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정규직 언어치료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6개소(50.0%)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2개소(34.8%)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개소(8.7%), 3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개소(5.4%), 5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비정규직 언어치료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

육지원센터가 56개소(60.9%)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1개소(22.8%),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1개소(12.0%), 3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 나타났다. 비정규직 언어치료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지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1개소(77.2%)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5개소(16.3%)였으며,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 3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 4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언어치료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근무인원이 정규직의 근무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원요망 인원을 살펴보면 작업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요망 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8)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상담전문가의 수와 충원되지 바라는 상담전문가의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상담전문가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91	98.9	0	53	57.6
	1	1	1.1	1	39	42.4
비정규직	0	86	93.5	0	79	85.9
	1	6	6.5	1	13	14.1

정규직 상담전문가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1개소(98.9%)였고, 1명이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정규직 상담전문가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53개소(57.6%)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9개소(42.4%)였다.

비정규직 상담전문가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6개소(93.5%)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개소(6.5%)였다. 비정규직 상담전문가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지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9개소(85.9%)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3개소(14.1%)였다.

상담전문가의 경우 근무인원이 다른 전담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특수교사가 상담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청에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청 소속의 상담전문가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상담의 필요성은 느끼나 특수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많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사의 수와 충원되지 바라는 사회복지사의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사회복지사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92	100	0	63	68.5
				1	27	29.3
				2	2	2.2
비정규직	0	90	97.8	0	82	89.1
	1	2	2.2	1	10	10.9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3개소(68.5%)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7개소(29.3%),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0개소(97.8%)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지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2개소(89.1%)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0개소(10.9%)였다.

10)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의 수와 충원되지 바라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수를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특수교육보조원의 현재 배치 인원과 충원 요망 인원의 비교

고용형태	현재 배치 인원			충원 요망 인원		
	인원	빈도	비율(%)	인원	빈도	비율(%)
정규직	0	92	100	0	71	77.2
				1	10	10.9
				2	8	8.7
				3	1	1.1
				5	2	2.2
비정규직	0	71	77.2	0	82	89.1
	1	13	14.1	1	8	8.7
	2	2	2.2	2	1	1.1
	3	2	2.2	5	1	1.1
	4	4	4.3			

정규직 특수교육보조원을 현재 배치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혀 없었다. 정규직 특수교육보조원의 충원 요망 인원을 보면 충원을 요망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1개소(77.2%)였고, 1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0개소(10.9%), 2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개소(8.7%), 3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 5명을 충원하기 요망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였다.

비정규직 특수교육보조원의 현재 배치 현황을 보면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71개소(77.2%)였고, 1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3개소(14.1%), 2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 3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2.2%), 4명을 배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4.3%)였다. 비정규직 특수교육보조원의 충원 요망 정도를 보면 전혀 충원되지 바라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2개소(89.1%)였고, 1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8개소(8.7%), 2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 5명을 충원하기 바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소(1.1%)였다.

기타의견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체적으로 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전담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상담사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규직 교사의 배치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고 이러한 원인으로 업무처리, 학부모와의 상담, 교육의 연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좀 더 체계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후에는 지역별 업무담당자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기회 마련이 필요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이 연구의 세 번째 문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기자재의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주요 시설 및 기자재의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각 기능별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표본 t 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기자재의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의 비교

시설 및 기자재	현재 확보 정도		확보 요망 정도		t검정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단·평가실	2.68	1.13	3.80	1.05	-5.39***
교수학습실	2.62	1.00	3.71	0.87	-6.18***
상담실	2.73	1.00	3.76	0.92	-5.76***
치료지원실	2.70	1.17	3.83	0.93	-5.90***
직업·전환실	1.91	1.10	4.05	0.88	-11.94***
장애인 편의시설	2.79	1.00	3.80	0.91	-5.66***
진단·평가 도구	3.64	0.82	3.22	1.05	2.51*
교수학습 자료	3.52	0.73	3.37	1.00	0.97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3.05	0.93	3.61	0.97	-3.20**
교사용 연수 자료	2.64	0.90	3.80	0.91	-6.98***

* $p<.05$, ** $p<.01$, *** $p<.001$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요 시설의 현재 확보 정도를 살펴보면 상담실, 치료지원실, 진단평가실, 교수학습실, 직업·전환실 등의 순이었으며, 기자재의 경우 진단·평가도구, 교수학습자료,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장애인 편의시설, 교사용 연수자료의 순이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진단·평가 도구, 교수학습자료,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상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실, 치료지원실, 진단·평가실, 교사용 연수자료, 교수학습실, 직업·전환실은 보통 이하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기자재의 확보 요망 정도 순위를 살펴보면 직업·전환실, 치료지원실, 진단·평가실, 장애인 편의시설, 교사용 연수자료, 상담실, 교수학습실,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교수학습 자료, 진단·평가 도구의 순이었다. 직업 전환실에 대해서는 확보 요망 정도가 5단계 Likert 평정척도에서 4점 이상이었고, 다른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확보 요망 정도의 범위가 3.22-3.83이었다.

각 시설 및 기자재의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단·평가실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2.68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80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교수학습실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2.62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71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상담실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2.73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76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치료지원실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2.70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83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직업·전환실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1.91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4.05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개선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2.79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80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진단·평가 도구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3.64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22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3.05이었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61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교사용 연수자료의 경우 현재 확보 정도는 평균 2.64였고, 확보 요망 정도는 평균 3.80이었으며,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교수학습자료는 현재 확보 정도와 확보 요망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수학습자료의 경우 비교적 충분히 갖추어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기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 특수교육지원센터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의견, 병원 및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연계성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의견, 정규과정을 마친 성인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한 직업교육시설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은 비교적 적정 수준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조기 발견, 특수교육 연수, 치료지원, 가족상담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수교육행정 지원은 적정 수준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및 기자재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적정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인지, 장애인공단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 기관의 기능인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개선 요망 정도 순위를 보면 평생교육·취업 지원, 가족상담 지원, 조기 발견, 특수교육 연수, 치료 지원, 진단·평가, 특수교육행정 지원, 정보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정책 개발 과정에서 모든 지원 기능을 한꺼번에 활성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구가 높게 나타난 지원영역의 기능부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법정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문영역이나 영역별 숫자 면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인력의 특수교육경력이 평균 2년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인력 구성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전담인

력을 확대 배치하여야 하고, 여러 전문영역의 인력을 고르게 충원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경력이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지원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과 기자재도 현재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평가실, 상담실, 교수·학습실, 상담실, 치료지원실, 직업 전환실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진단·평가 도구, 보조공학 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도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기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진행 등을 관찰하고 관계자들과 면접을 실시하는 등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사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 및 기관 간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숙, 최세민, 김규일 (2008).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모형 연구. 서울: 한국특수교육진흥회.
- 구영희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요구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경숙 (2000).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방안.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배정은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의 운영실태 인식 및 욕구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백옥희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과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2009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성과 보고회 자료집(pp.15-26).
- 이대조 (2010).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능역할에 따른 실태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대구.
- 이미선 (200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현장특수교육**, 13(2), 85-87.
- 이미선, 이유훈, 조광순, 김태준 (2006).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요구 분석. **한국교육**, 33(2), 167-195.
- 이효자 (200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특수교육 전문직 워크숍 자료집**, 1-9(9).
- 이효자 (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요구 조사. **특수교육지원센터**.
- 정동영 (200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방향 및 과제. **현장특수교육**, 8(6), 22-25.
- 조옥순 (2007). 병원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현장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장학의 방향**, 145-155.
- 최재완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발전 방안 탐색: 센터 전담교사와 학교현장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핵심집단 면담 연구. **특수교육**, 9(1), 71-94.
-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1-22.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결과 법적 기구가 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선생님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오직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더욱 건강하십시오.

2010년 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김태훈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

1. 기초 조사

※ 다음은 선생님의 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안에 “√”를 표시하여 주시거나 직접 응답을 기입해 주십시오.

1. 현재 근무하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장소는?

- ① 시·군·구(지역)교육청() ② 특수학교()
③ 일반학교() ④ 기타(, 장소:)

2. 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선생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선생님의 전공은?

- ① 특수교육전공() ② 일반교육전공()
③ 일반교육전공+특수교육전공() ④ 기타()

5.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2010년 9월 1일 기준)

총 ()년 ()개월

6.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신 선생님의 경력은? (2010년 9월 1일 기준)

총 ()년 ()개월

II.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왼쪽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재 확보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각 문항의 오른쪽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확보 정도					문 항	개선 요망 정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혀 필요없다	거의 필요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자료 대여 등)					
					순회교육					
					치료지원					
					가족상담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수교육행정지원					

III.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왼쪽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적어 주십시오.

각 문항의 오른쪽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앞으로 총원되기 바라는 인원**을 적어 주십시오.

현재 인원		전담인력	총원 요망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명	명	특수학교(유치원)교사	명	명
명	명	특수학교(초등)교사	명	명
명	명	특수학교(중등)교사	명	명
명	명	특수학교(직업)교사	명	명
명	명	물리치료사	명	명
명	명	작업치료사	명	명
명	명	언어치료사	명	명
명	명	상담전문가	명	명
명	명	사회복지사	명	명
명	명	특수교육보조원	명	명

IV.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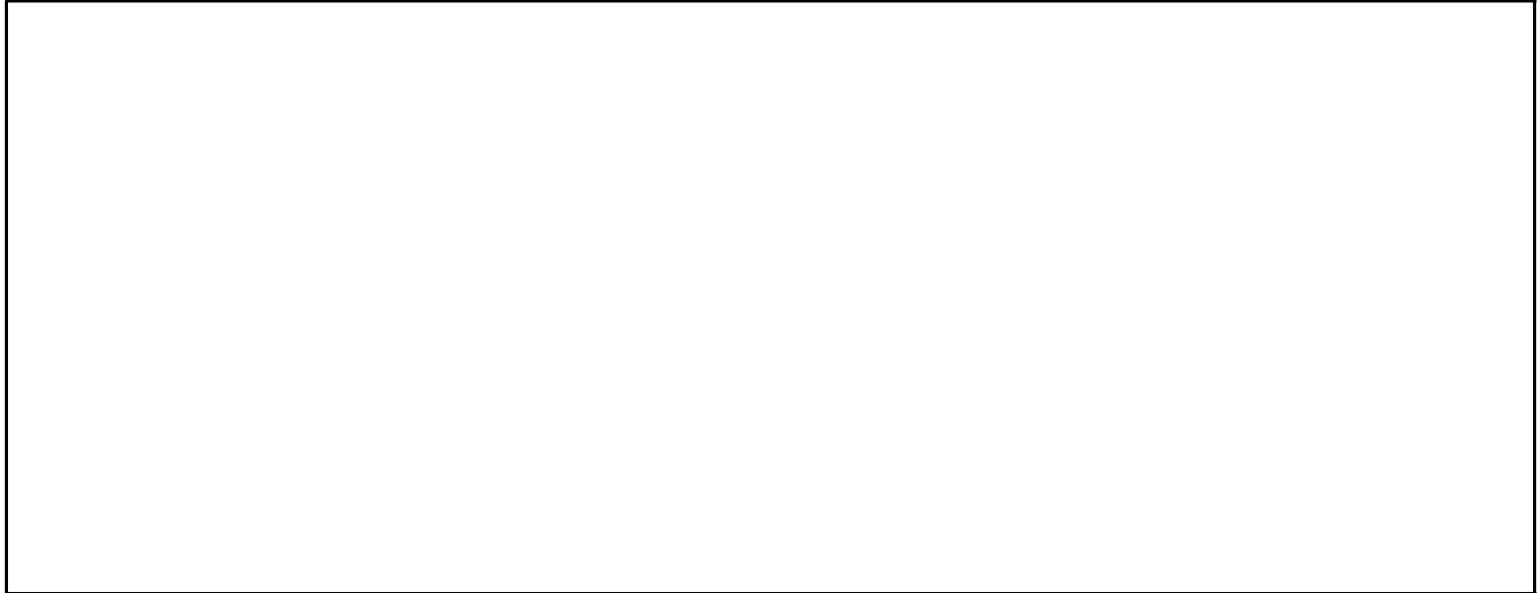
각 문항의 왼쪽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각 문항의 오른쪽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앞으로 확보되기 바라는 정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현재 보유 정도					문 항	확보 요망 정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혀 필요없다	거의 필요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진단·평가실					
					교수학습실					
					상담실					
					치료지원실					
					직업·전환 교육실					
					장애인 편의시설					
					진단·평가 도구					
					교수학습 자료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교사용 연수 자료					

V. 기타 의견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8801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김태훈 한문 : 金泰勳 영문 : Tae-hun kim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중화산동2가 거성근영APT 102동 711호				
연락처	E-MAIL : kimth136@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향 영어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 하였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1년 1 월 5 일

저작자 : 김 태 훈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